

날짜 : 2025. 6. 19.(목) 수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당 : 정책실 (010-3119-5330)	 <p>행복한 교사 교육의 미래</p> <p>함께하는 인천교사노동조합</p>
위원장 김성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 B동 405호 https://ictu.kftu.net/ 대표전화 010-8108-5479 E-mail: ictu24@naver.com	

[보도자료] 인천교사노동조합,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정부 교육정책에 관한 인천 교사 현장 인식 설문 결과 발표

인천 교사들,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 낙제!

새 정부는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에 교육 전문가인 현장 교사 목소리 반영해야!

- 교사 10명 중 8명, "학교 환경,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 교사들 수업 준비 및 연구 시간 부족, 행정 업무가 교사 전문성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
- 인천 교사 중, 유보통합 74.8%, 늘봄 66.8%, 고교학점제 68.7%, AIDT 81.4%, 교권보호 및 민원대응시스템 운영 67.3% F학점!
- 인천교사노조, 교육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교사 전문성개발을 위한 지원 요구

1.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 이하 인천교사노조)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간 인천의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738명의 교사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되었고,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없는 교육 환경이 교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이 드러났다.
2. 현재 학교 환경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인천의 교사들 중 **82.4%(608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학교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예'라고 응답한 교사는 17.6%(130명)에 불과했다.
근무시간 중에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할 시간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도 인천의 교사들 중 **88.3%(652명)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예'라고 응답한 교사는 11.7%(86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인천의 교사들이 교사의 본질업무인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연구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돕지 못하고, 수업 준비나 연구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의 질은 확보되기 어렵다**.
3. 인천의 교사들은 '현재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중복 선택 2개 가능)에 1순위로 **학습운영 및 생활지도**(42.1%(311명))를 꼽았고, 2순위로 **교권 및 학교 민원 대응**(40.4%(298명))을, 3순위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40.2%(297명))를 꼽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실 전반의**

운영'과 '민원 대응'까지 모두 교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교 환경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SNS 명예훼손, 학교폭력, 교권침해, 아동학대신고, AIDT 등 과거보다 중요도가 커진 생활지도와 학생상담, 민원대응, 에듀테크 등 교사들이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키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떠한 지원을 해주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최근 학생수가 줄어들어 중고등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가 늘고 있다. 다과목 지도를 위해서는 교과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더 많은 연구시간 확보가 필수인데, 학교의 환경은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갖출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원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4. 인천의 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중복선택 2개가능)으로 **88.6%(654명)의 교사가 '업무 과다 및 행정업무 부담'**을 꼽았다. '복무나 연수비 등 지원 부족'도 51.6%(381명)에 달했으며,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28.3%(209명)를 기록했다. 교사들은 배우고 싶어도 시간과 제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제는 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의 노력'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성 개발이라는 문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의견**'으로 "**민원 대응으로 인한 소진과 시간 부족**", "**학교에서 교육이 빠지고 보육이 중요해 짐**", "**과도한 담임 업무(민원처리)**", "**악성민원도 무조건 대응해야 함**" 등 민원과 교권침해관련 응답이 주류를 이루어 민원대응과 교권침해가 교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전문성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교에서 민원 대응에 할애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25년 차 초등학교 선생님은 "**의욕을 갖고 잘 해보야 민원만 늘어난다.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봐 생활지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전문성 개발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하며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교육이 아니고 보육이 중요해졌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 데리고 있는 게 교사의 역할인 것 같다**"며 가르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5. 이전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인천 교사의 평가는 매우 낮았다. 'F등급'을 준 응답 비율이 66~82%에 달했고, 'A'와 'B'등급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특히 「AIDT 정책」에 대한 점수에서 94.2%의 교사가 D, F학점을 매겼고 단 1.5%의 교사만이 A, B점수를 줬다. 「유보통합 정책」은 부정적 85.5%(590명), 긍정적 1.3%(9명)이고, 「고교학점제」는 부정적 82.2%(565명), 긍정적 2%(14명)의견을 보였다. 「**늘봄 및 돌봄정책**」 또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81.8%(579명)가 부정적, 3.9%(28명)만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들 대부분에 교사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현장에서 교육부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가 추진해 온 「교권보호 및 민원응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87.6%(638명)이고 긍정적인 의견은 단 1.5%(11명)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교사들의 소진을 막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민원응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인천교사노조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교권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한다.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의 현장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인 현장 교사의 목소리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는 ‘현장과의 소통 부재’, ‘Top-Down 방식의 사업추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새 정부는 우리 교육 현장에 산적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전문가인 현장 교사와의 소통을 우선해주시기 바란다. 교육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 확충,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사 생존권 보장, 교사가 행정업무와 민원대응에서 벗어나 학생을 교육하는 본질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등이 시급하다.

7.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교사는 교육전문가이며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정책은 교사의 시간을 빼앗고, 의욕을 꺾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연수나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하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교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처럼 상명하달식의 교육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된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시들고 말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교육정책을 꽃피우는 가장 빠른 길은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 6. 19.

인천교사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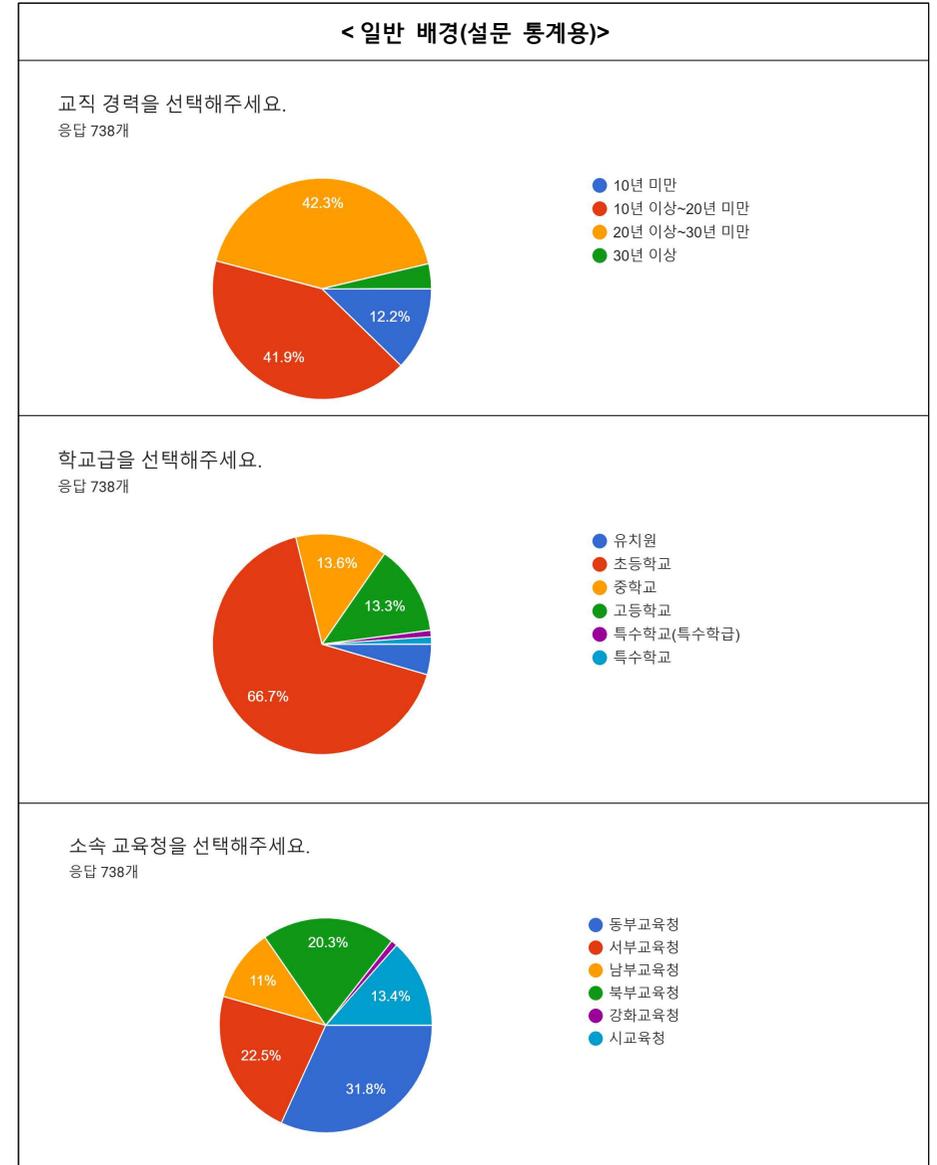
<2025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정부 교육정책에 관한 인천 교사 현장 인식 설문 결과 발표>

*설문기간 : 2025.5.10.- 5.12.

*설문대상 : 인천 교사

*설문응답자 : 7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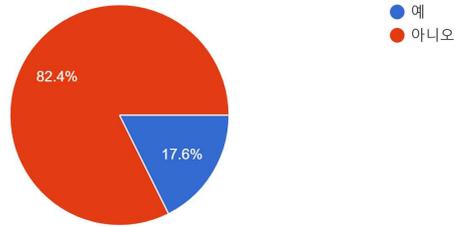
*주관 : 인천교사노동조합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지원>

1. 현재 학교 환경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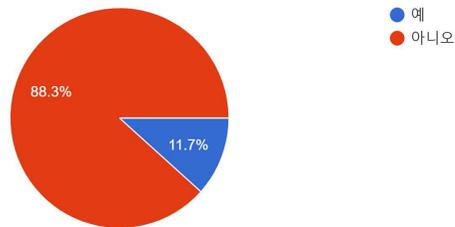
응답 738개



응답	개수	비율
예	130	17.6%
아니오	608	82.4%

2. 근무시간 중에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할 시간이 충분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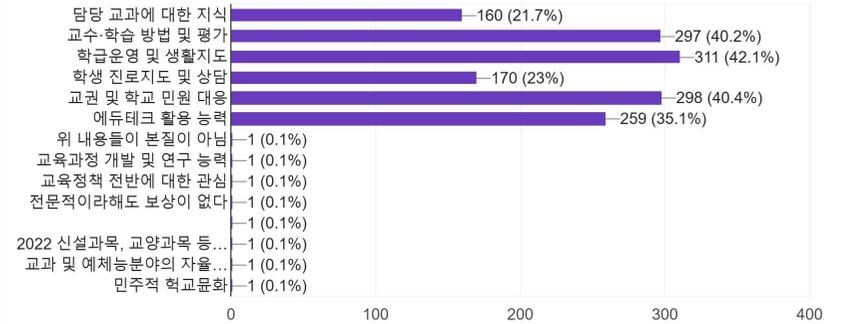
응답 738개



응답	개수	비율
예	86	11.7%
아니오	652	88.3%

3. 현재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중복선택 2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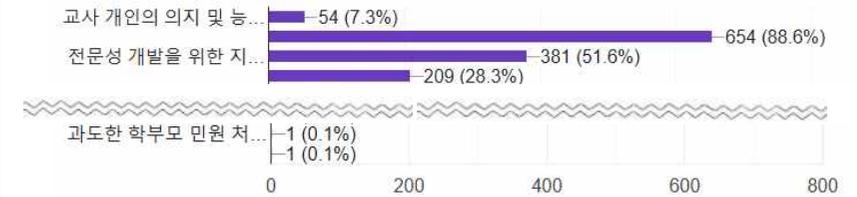
응답 738개



분야	개수	비율
학급운영 및 생활지도	311	42.1%
교권 및 학교 민원 대응	298	40.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297	40.2%
에듀테크 활용 능력	259	35.1%
학생 진로 지도 및 상담	170	23%
담당교과에 대한 지식	160	21.7%
기타	8	0.8%

4.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중복선택 2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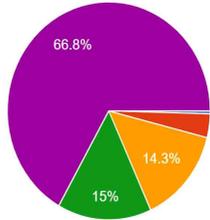
응답 738개



요인	개수	비율
교사 개인의 의지 및 능력 부족	654	88.6%
업무 과다 및 행정업무 부담	654	88.6%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 부족(복무, 연수비 등)	381	51.6%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부족	209	28.3%
기타	54	7.3%

<이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만 선택해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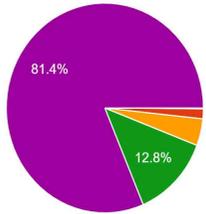
1. 교육부의 늘봄 및 돌봄정책에 대해 학점을 매겨주세요.
응답 708개



● A
● B
● C
● D
● F

A	3	0.4%	3.9%
B	25	3.5%	(28)
C	101	14.3%	-
D	106	15%	81.8%
F	473	66.8%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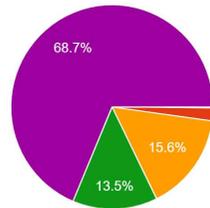
2. 교육부의 AIDT(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해 학점을 매겨주세요.
응답 724개



● A
● B
● C
● D
● F

A	0	-	1.5%
B	11	1.5%	(11명)
C	30	4.1%	-
D	93	12.8%	94.2%
F	589	81.4%	(68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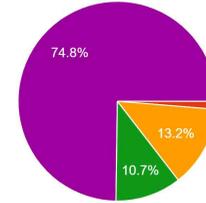
3.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해 학점을 매겨주세요.
응답 687개



● A
● B
● C
● D
● F

A	0	-	2%
B	14	2%	(14명)
C	107	15.6%	-
D	93	13.5%	82.2%
F	472	68.7%	(5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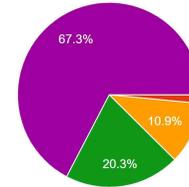
4.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학점을 매겨주세요.
응답 690개



● A
● B
● C
● D
● F

A	0	-	1.3%
B	9	1.3%	(9명)
C	91	13.2%	-
D	74	10.7%	85.5%
F	516	74.8%	(590명)

5. 교육부의 교권보호 및 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에 대해 학점을 매겨주세요.
응답 728개



● A
● B
● C
● D
● F

A	0	-	1.5%
B	11	1.5%	(11명)
C	79	10.9%	-
D	148	20.3%	87.6%
F	490	67.3%	(638명)